

미국산 쇠고기 추가협상 결과

2008. 6. 21(토)

외 교 통 상 부
농림수산식품부

1. 협상 개요

- 2008.6.13(금)-19(목)간 워싱턴(한·미 통상장관회의 7회 개최)
 - 김종훈 통상교섭본부장, 박덕배 농식품부 제2차관 및 실무자 참석

2. 합의 내용

- ① 미 정부가 보증하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의 운영을 통하여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었던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 수입을 실효적으로 차단
- ② 국내검역 및 미 도축장 현지 점검시 우리 정부의 검역권한 강화
- ③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를 SRM 범위와 무관하게 수입차단
- ④ 합의사항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명시하여 상기 3개 사항의 실효적 집행을 확보

가. 30개월령 이상 미 쇠고기의 수입을 방지하는 실효적 장치 확보

- 업계(한국 수입업자 및 미 수출업자)의 요청에 따라 미 정부(USDA)는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을 도입·운영기로 함.
- ‘한국 QSA’에 참여하는 미 쇠고기 수출작업장은 프로그램 내용에 대하여 미 농무부(AMS: 농산물유통국)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를 시행함에 있어 동 기관의 감독을 받음.

- 한국에 수출코자 하는 미 수출작업장은 ‘수출위생증명서 (Export Certificate of Wholesomeness)*’상에 “동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 QSA’ 프로그램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작업장에서 생산되었음”을 명기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SIS)의 양식(FSIS 9060-5호) : 별첨

※ QSA 프로그램은 미국 내수용 쇠고기 제품 품질관리에도 적용되는 제도이며, ‘한국 QSA’는 미국내수용 품질관리에 추가하여 30개월 미만임을 증명하는 것임.

- 우리 검역당국은 ① 동 증명서가 동반되어 있지 않거나, ② 동 증명서가 있더라도 상기 내용이 적시되어 있지 않은 제품은 반송조치
- ‘한국 QSA’는 한국 소비자 신뢰가 개선될 때까지 기한없이 경과조치로서 실시
- 동 내용을 수입위생조건(농식품부 장관 고시)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

나. 한국정부의 검역 권한 강화

- 1) 우리측 검역과정에서 2회 이상 식품안전위해 발견시 한국측 권한 강화 (제24조)

※ 현행 조항은 “동일한 육류작업장에서 생산된 로트에서 최소 2회의 식품안전 위해가 발견된 경우, 해당 육류작업장은 개선 조치가 취해질 때까지 중단 조치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중단조치의 주체 및 절차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있음

-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 요구가 있는 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 조치를 즉각 시행

2) 도축장 현지 점검 권한 강화 (제8조)

※ 현행 조항은 “한국정부는 한국으로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을 수출하는 육류작업장 중 대표성있는 표본에 대해 현지 점검을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특정 작업장을 점검할 권한이 불명확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을 발견한 경우에도 미국 정부에 통보하고, 미국정부가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것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된 바 있음.

- 현지 점검시 한국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작업장을 특정하여 점검 가능
- 점검결과 중대한 위반 발견시 양측은 1차적으로 실무협의를, 2차적으로 고위협의를 갖고 시정 조치를 논의하되, 4주 이내에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한국은 해당 작업장에서 수출되는 물량에 대하여 강화된 검역조치를 연속 5회 실시하며,
- 동 강화된 검역조치 시행 중 2회 이상 식품안전 위해가 발생할 경우, 한국정부는 해당 작업장의 수출작업중단을 미측에 요구할 수 있고, 우리측의 요구가 있는대로 미국은 수출작업중단을 즉각 시행

3) 상기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여 시행

다. 4개 부위(뇌, 눈, 척수, 머리뼈) 수입차단

- 미측은 상기 부위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이 아니라는 점을 들어 우리측이 검역과정에서 반송조치하는 것에 대해 강하게 반대하였음.

- 우리측은 이러한 부위들이 지금까지 수입된 바 없었고, 앞으로도 수입될 가능성이 전무하지만, 우리 국민들의 우려가 큰 점을 들어 고시에 반영할 것을 주장
- 아래 내용을 수입위생조건 부칙에 반영하는 것에 합의
 - 동 부위들은 30개월 미만인 경우 특정위험물질(SRM)은 아니지만, 한국 수입업자의 주문이 없는 한, 통관검역시 발견되면 한국정부는 동 제품을 반송 조치함.
- 상기 합의를 도출하는 과정에서 미측은 2006년 우리측이 뼈 조각을 이유로 전량 반송하여 양측간 신뢰가 크게 손상된 사례가 있음을 들어,
 - 극소한 머리뼈의 조각(bone chips) 또는 미량의 척수 잔여조직(residual tissue)이 발견되는 경우, 전례와 같은 반송조치 가능성에 대해 큰 우려를 제기함에 따라, 이러한 내용을 고시에는 반영하지 않되 검역지침에 포함키로 함.

3. 향후 조치계획

가. 총리 주재 관계부처장관회의

- 수입위생조건(고시) 부칙 수정안 검토, 확정

나. 농식품부장관 담화문 발표 및 고시 게재 요청

- 수입위생조건(고시) 부칙 수정내용 공개

다. 농식품부장관 고시 발효(관보 게재)

라.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명의의 우리 농식품부장관 및
통상교섭본부장 앞 서한 접수

- 금번 추가협상의 한·미간 합의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서명본
접수 즉시 공개 예정)

첨부 : 1.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호) 양식
2. '한국 QSA' 제도 개요
3. 양국 업계 자율규제 발표문. 끝.

[첨부1]

수출위생증명서(FSIS 9060-5호)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FIELD OPERATIONS MEAT AND POULTRY EXPORT CERTIFICATE OF WHOLESMENESS		A knowingly false entry or false alteration of any entry on this certificate may result in a fine of not more than \$10,000 or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five years or both (18 USC 1001). Additional penalties exist under the Federal Meat Inspection Act (21 USC 611 (b) (1), (2), and (5), 21 USC 676) and the Poultry Products Inspection Act (21 USC 458 (c) (1), (2), and (5), 21 USC 461) for an unauthorized or false alteration or misuse of this certificate.		
DISTRICT OFFICE	COUNTRY OF DESTINATION	DATE ISSUED	MPF -	
EXPORTED BY 1/ (Applicant's name and address including ZIP Code)		PRODUCT EXPORTED FROM: EST. / PLANT NUMBER (if applicable)		
CONSIGNED TO 1/ (Name and address including ZIP Code)		CITY		
TOTAL MARKED NET WEIGHT	TOTAL CONTAINERS	<input type="checkbox"/> @ SLAUGHTERING PLANT <input type="checkbox"/> @ PROCESSING PLANT <input type="checkbox"/> @ WAREHOUSE <input type="checkbox"/> @ DOCKSIDE		
PRODUCT AS LABELED	MARKED WEIGHT OF LOT 1/	NUMBER OF PACKAGES IN LOT 1/	SHIPPING MARKS 1/	EST / PLANT NUMBER ON PRODUCT
1/ As stated by applicant or contractor				
REMARKS				
(이 공간에 다음 내용을 적기) <i>The beef or beef products were produced at a verified establishment under the USDA "Less than 30 Month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QSA) Program for Korea"</i>				
<input type="checkbox"/> I CERTIFY that the meat or meat food product specified herein is from animals that received both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 and were found sound and healthy and that it has been inspected and passed as provided by law and regulations of the Department and is sound and wholesome.				
<input type="checkbox"/> I CERTIFY that the poultry and poultry products specified above came from birds that were officially given an antemortem and postmortem inspection and passed in accordance with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of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and are wholesome and fit for human consumption.				
NOT VALID UNLESS SIGNED BY AN INSPECTOR OF MEAT AND POULTRY INSPECTION PROGRAM				
By order of the Secretary of Agriculture		INSPECTOR AND DISTRICT		
This certificate is receivable in all courts of the United States as prima-facie evidence of the truth of the statements therein contained. This certificate does not excuse failure to comply with any of the regulatory laws enforced by the United States Department of Agriculture.				
FSIS FORM 9060-5 (07/19/2001)		REPLACES FSIS FORM 9060-5 (05/06/1993), WHICH MAY BE USED UNTIL EXHAUSTED. Designed on FormFlow Software. ORIGINAL		

【첨부2】

‘한국 QSA’ 제도

1. 프로그램 정식 명칭

- 한국 수출용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프로그램(약칭 “한국 QSA”)
 - the Less than 30 Months Age-Verification Quality System Assessment (QSA) Program for Korea

2. 법적 근거

- 1946년 제정된 미 농산물유통법(Agricultural Marketing Act(USC 1621)에 근거
 - 미 연방규정(7 CFR 62)의 품질체계검증 프로그램 등 하위규정에 따라 미 농무부 농업유통국(AMS : Agricultural Marketing Service)이 QSA 프로그램을 승인·관리

3. ‘한국 QSA’ 운영 및 수출위생검역증 발급 절차

- 미 수출업체가 자체 ‘한국 QSA’를 수립하고, 이를 미 농무부 AMS의 승인을 받아 운영하며, 미 농무부 AMS는 동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 정기 또는 수시 감사를 실시
- 동 프로그램 참여 수출업체는 수출위생증명서 양식(FSIS양식 9060-5호)을 미 농무부 FSIS 검역관에게 제출하면 수출위생증명서를 발급받음
 - * FSIS : 미 농무부 식품안전검사국(Food Safety and Inspection Service)
- FSIS 검역관은 동 수출업체가 ‘한국 QSA’프로그램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 중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수출위생증명서 비고란(remark section)에 당해 "쇠고기 또는 쇠고기 제품은 미 농무부의 한국을 위한 30개월 미만 연령 검증 품질체계 평가(QSA) 프로그램에 따라 검증된 작업장에서 생산되었다"고 명기한 수출위생증명서에 서명(수출위생증명서 발급)

【첨부3】

양국 업계 자율규제 발표문

※ 한국 수입업계 성명서 발표 (6.20 오후)

- 성명서 발표후 미육류수출협회(USMEF) 및 주한미대사관에 전달

(요지)

-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회복될 때까지 경과조치로서 다음 사항을 지킬 것을 서약드립니다.
 - 미국 수출업체로부터 30개월 미만 쇠고기만을 수입하겠습니다.
 - 미국 수출업체들이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한다는 점을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미국정부로부터 보증을 받도록 요구함
 - 국내유통과정에서도 30개월 이상 된 미국산 쇠고기는 유통되지 않도록 할 것임.
 - 국민 여러분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고품질의 안전한 쇠고기를 수입하여 공급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미국 수출업체 공개서한 발표 (미국시간 6.20)

- USMEF, AMI, NMA등 3개 협회장의 미 농무장관 및 무역대표 앞서한 발송

(요지)

- 한국 내에서 30개월 이상 쇠고기에 대한 우려 인식
- 미국산 쇠고기가 안전하다고 확신하나, 소비자들의 우려를 해소해 달라는 수입업자들의 요청에 따라 OIE 기준에 따른 완전한 시장 개방 이전의 경과조치로서 미 농무부가 확인한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출할 준비가 되어있음.
- 이러한 서약의 촉진을 위해, 미 업계는 수입위생조건 발효 후 가능한 빨리 미국정부가 ‘한국 수출용 30개월령 미만 증명 프로그램(QSA)’을 도입할 것을 요구
- 한국정부의 수입위생조건 관보게재 후 USMEF는 미국정부의 쇠고기 안전성에 대한 문제 제기에 대응하는 소통 프로그램을 도입하고자 하며 이와 관련 양국정부의 협조를 요청

□□